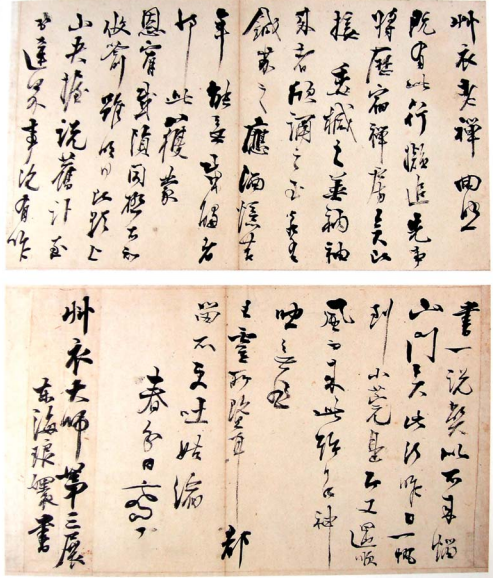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와 초의 재회는 한쪽의 선화

추사의 해배가 알려진 것은 1848년 12월 6일이지만 제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이 해 12월 19일쯤이라 짐작된다. 을유(1849년) 2월 28일, 이진에서 용산 본가로 보낸 추사의 편지는 선문대학 박물관 소장본인데, 이는 그가 해배 소식을 듣고 행장을 꾸려 제주를 출발한 후, 이진(梨津: 현재 전남 해남군 북평리)에 도착했던 여정이 상세히 드러난 자료이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2월 15일에야 포구로 내려왔다. 종략... 포구로 내려온 지 열흘 만인 26일에야 동풍을 만났는데, 뜻을 한번 올려 천리 길을 편히 건넜다. 종략... 소완도 앞에 이르자 모두 뜻을 내리고, 잠시 머물렀다. 새벽에 또 동풍이 일자 정오에는 곧장 이진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며칠 짐을 꾸리는 동안에 잠시나마 초의선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지난 일을 추억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그가 제주를 출발하여 이진에 도착한 것은 1849년 2월 27일이며, 용산 본가에 보낸 편지는 이진에서 썼음이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한해 추사가 해배된 후, 한양에 도착한 시기가 1849년 1월로 알려진 적도 있었지만 이 편지의 발췌로 인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진 셈이다. 추사는 용산 본가 이외에도 초의에게 소완도에 도착을 알렸는데, 이는 <완전집>(여초의) 30신과 <영해태운집>, <나가죽연첩>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초의에게 보낸 이 편지는 간기가 없어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없었으나 용산 본가에 보낸 편지로 인해 이 편지 역시 이진에 도착한 1849년 2월 27일쯤에 쓴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 편지는 아래와 같다.



<나가죽연첩>에 실린 '소완도' 도착을 알리는 편지

1848년 12월 추사 유배 해제 이듬해 2월 소완도의 초의 찾아가

어느 좋은 스님의 소매 속에 간직하고 온 서한을 받으니 너무 반가워서 침개(鍼芥: 바늘과 겨자씨가 서로 만남)의 감응이 있는 듯합니다.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감동되어 느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형벌이) 없어지는 임금의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망극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일이라도 바로 산에 올라가서 유쾌히 손을 잡고 옛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집의 일은 이미 글을 써서 한번 폐단을 얘기한 일이 있으니 산문을 괴롭히지는 않을 듯합니다. (나의

이 행차는 어제 작은 배로 소완도에 도착했고, 지금은 또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왔으니 이것은 아마 신의 보살핌이 있는 듯하고, 선왕들의 영험함이 아니고는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춘분일 재일(既有此行 擬追先事 將歷宿禿房矣 即接委械之善衲袖來者欣誦之 至若有鍼芥之應 緬憶昔年能無感觸者耶 此獲蒙恩宥減限 固極不知 惟喻 雖明日即欲上山 且擬說舊計 至於蓮界事 既有作書一說弊 似不來嶺山門矣 此行日昨一帆到小莞島 今又遇順風而來 此殆有神照 無非王靈所 耳 都留不更吐 姑縮 春分日 齋日 草衣大師第三展 東海浪10書

이진에 도착해 짐을 꾸리는 동안 “초의를 찾아 지난 일을 추억하려고 한다”는 추사의 바람은 언설로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터. 제주 귀양길에 들었던 일지암과 해배 길의 해후는 그 감회가 분명 달랐으리라. 그가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감동되어 느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말은 추사의 마음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항상 임금에 대한 충심이 가득했던 추사, 임금의 은총에 감응한 그는 “망극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초의와 함께 하고픈 마음 “내일이라도 바로 산에 올라가서 유쾌히 손을 잡고 옛일을 얘기하고 싶다”라 하였으니 산차를 앞에 둔 이들의 답답한 재회는 분명 한 쪽의 선화(禪畫)처럼 맑고 온화했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이미 이렇게 가게 되었으니 옛 일을 추급하여 지나는 길에 선방에서 묵을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의 病 함께



박귀원 무량감로회 회원이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을 진찰하고 있다. 간이 진료소인 무량감로회 회원들이 포진돼 어르신 건강을 보살핀다.

어르신 아픔 돌보는 의료봉사단체 무량감로회

2012년부터 월 1회 의료봉사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조계사 불교대학에 가면 볼 수 있는 한 풍경이 있다. 바로 의료봉사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줄이다.
오전 10시부터 진료가 시작되지만 9시 무렵이면 100여 명이 이미 강의실에서 순번을 기다린다. 매달 찾는 어르신들은 250여 명, 이미 지역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 어르신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매달 인원이 늘고 있다.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강의실에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흐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관심과 몸의 아픔을 치유하는 손길.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픈 몸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밝지 않은 표정은 금세 밝아진다.

났다. 현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만 의사 10여 명, 약사 20여 명 등 자원봉사자 포함 100여 명에 달한다.

내과, 정형외과 등 하나의 종합병원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일요일이면 조계사 앞마당은 북적인다. 9월 8일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접수대에서 진료카드를 받아 진료소로 이동했다. 서로 순번을 지켜 다소 비좁은 공간임에도 차분한 가운데 진료가 진행됐다. 순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불교대학 강의실과 조계사 곳곳에서 환담을 나눴다.

접수대에서는 간호사들이 간단한 혈압과 이상 증세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진료과목을 안내했다. 청진기와 여러 검진 장비를 갖추고 꼼꼼히 어르신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무량감로회의 진료과목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로 하나의 작은 종합병원이다.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진료카드에 아픈 곳을 자세히 기록했다. 한 간호사분은 “내과와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은 학회 세미나 관계로 물리치료과는 의료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근육통 등으로 평소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곳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무량감로회 진료소는 강의실 구조를 그대로 활용했다. 강의실 책상 하나를 놓고 진료를 보고 반대편 강의실 책상에서는 저울을 가져다 놓고 끊임없이 약제를 만들었다.

분주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의사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무량감로회의 의사들은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전문의들이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꼼꼼히 증상을 묻고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진료 때마다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약을 만드는 약사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더하고 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런 정성 하나 하나는 어르신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도 많았다. 의료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조계사 불교대학을 찾는다. 최금근(81세) 할아버지는 성수동에서 이날 진료를 받기 위해 왔다.

“자식들은 다 결혼했고 혼자 살아. 2년째 오고 있는데 오늘은 감기약과 무좀약을 받았어. 약값이 오전 원이었는데 이게 우리 나이 때에는 부담이 되거든. 괜히 아프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마하고... 처음에는 봉은사에 갔다가 얘기를 듣고 오게 됐는데 고마울 뿐이야”

최숙자 할머니(74세)도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최고”라며 “병원에 가도 진단까지 며칠씩 기다리고 약 처방도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는데 무량감로회는 유명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진료해주고 바로 옆에서 약도 만들어 줘 참 좋다”고 말했다.

- 100여 봉사자가 월 250여 어르신 시봉
- 1998년 창립된 불자약사보리회가 전신
- 2001년 의약분업으로 봉사 중단 아픔
- 2009년 의사를 가세로 봉사 재개
- 2010년 1월 '무량감로회'로 창립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단체가 구성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신인 약사들의 의료봉사 단체 불자약사보리회가 해체되며 의사와 약사들이 함께 구성했다.

1998년 소외된 노인을 돕자는 뜻을 모아 약사들이 결성한 불자약사보리회는 자비를 들여 종로 탑골공원과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간단한 진단과 무료 투약 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2001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며 약사들의 처방이 금지됐다. 이발봉사와 식사 제공 등을 진행하는 등 다른 봉사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의료봉사가 중단되며 사실상 해체 단계를 밟게 됐다.

이에 아픈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의 뜻이 다시 모였다. 2009년 말부터 불자약사보리회에 참여하며 의료봉사 활동은 다시 재개된다. 김중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박귀원 서울의대 교수, 나정자 약사, 배광식 서울치대 교수, 박귀원 서울의대 교수, 채원선 자원봉사자 대표 등을 주축으로 조직을 꾸렸다. 2010년 1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은 이들 모임에 ‘무량감로회’란 이름을 내렸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들이 의료봉사를 매개로 모인 ‘무량감로회’의 탄생이었다. 무량감로회는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 당초 창립 초기에는 해방복지원 등 전국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2012년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에 보금자리를 틀고 월 1회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점차 참여 회원들이 늘어



입구 접수대에서 간호봉사자들이 어르신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노약사분도 노력 봉사로 동참하고 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펠) 8cm]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 A 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를 83.6% ▶ 녹농균 감소를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비천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원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고치는 것이 불법”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의료진료 뿐만 아니라 간단한 상담 또한 진행한다.

강령자 무량감로회 총무는 “매월 약을 타가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현재 250명가량이 되는데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귀원 무량감로회 회장은 “매달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다보니 안 내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재 회원들의 회비로는 약품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도 “다행히 대한약사회, 개인병원에 연관된 제약회사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후원이 문제”라며 “최근 기부금의 소득 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후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권혁철 회원의 유식 강의로 마무리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 회장은 본래 기독교 신자였지만 10년 전 유식불교를 접하고 불교에 귀의했다. 2011년부터 무량감로회 의료봉사 이후 교리 강연에 나서고 있다. 의료 진료를 받은 어르신 중 일부는 남아 교리강연을 들으며 신생활을 이어갔다.

권혁철 회장은 “봉사활동은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이날 강연 이후에는 교리강연 2주년을 맞은 작은 다과회도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단체로 소속

불자 의료진이 진료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무량감로회만의 원칙이 있다.

“절에 오지 않아도 책으로, 수행으로 불교를 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톨릭을 믿으면서도 삶의 방식은 불법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개종하려는 왕에게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 그게 불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 활동 같은 것을 해도 불교단체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돈 주고 약 주면서 약자인 환자에게 불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원칙은 무량감로회에 다양한 봉사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박귀원 서울대 교수도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문화재 답사모임에 참가하며 점차 불교적 삶에 대해 긍정을 갖게 됐다. 한편 마음이 생기자 저절로 불교를 공부하게 됐다. 박귀원 회장은 능인선원에서 불교수업을 듣는 등 신생활도 활발히 하고 있다.

박귀원 회장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있다”며 “어떤 회원들은 레지던트나 원무과 직원을 데리고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번 나왔던 회원들은 꼭 다시 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유명 의사의 진료도 여기서는 금방 받을 수 있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조계사 불교대학 앞에 걸린 플래카드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무량감로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강령자 총무, 박귀원 회장, 김종화 이사장, 안귀순 약사, 류인숙 자원봉사자

현재 무량감로회는 한국불교연구원의 산하 단체로 소속돼있다. 김종화 이사장은 “영수 처리를 위해 법인이 필요해 연구원 산하단체로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교수가 재가불자(在家佛子) 중심의 생활불교를 정립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곳으로 김종화 이사장이 4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생활불교를 표방한 한국불교연구원의 책재와 생활 속에서 봉사하는 무량감로회의 책재가 묘하게 닮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량감로회 창립을 주도한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인들은 ‘가끔 절에 간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깊이 공부한 경우가 많다”며 “서로 불교를 믿는 걸 모르는 정도로 내세우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인들은 다른 이에게 ‘불교 공부해보자’ 절에 가자’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며 “이는 불교가 생활철학으로 생활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교 드러내지 않는 원칙 지켜

의료봉사 후에는 불교교리 강좌 진행

2012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도 다녀와

성지순례·사찰 참배로 회원 신행 도모

어르신 늘어… ‘기부·약품 후원 절실’

지난 2012년에는 라오스에서 항문이 없어 태어난 아이를 수술하기도 하는 등 무량감로회의 활동은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성지순례 등 회원 간의 신생활 동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봉사는 스스로를 살찌우는 거예요. 가진 능력을 활용해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대승보살행이 아닐까요?”

하얀 가운을 입고 의료봉사를 하는 이들의 웃음이 그 어느 웃음보다 환하게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량감로회는?

2010년 1월 24일 창립한 의료전문 봉사단 무량감로회는 1998년 진행된 은 불자약사보리회가 전신이다. 2001년 의약분업이 본격시행되며 약사들의 의료봉사가 법적으로 막히며 의사와 약사, 간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0년 창립했다. 박귀원 서울의대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아 매주 둘째주 일요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 성지순례 및 사찰 참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전법일기

영어 담마 캠프(4)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특히, 이번 별빛명상에서 그러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평소와 달리 영어일기를 먼저 쓰고 밤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설법전에 모였다가 나가서 한 줄로 조용히 도량을 걷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다. 고요함이 무르익었을 때 쯤 미리 준비된 돛자리에 몸을 누이고 별을 보는 것이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여름밤 가족과 밭일을 끝내고 터벅터벅 걸어도 우연히 보게 된 별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깜깜한 하늘에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쏟아져 내리는 별빛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밤에 하늘을 볼 때면 가족들과 보았던 영롱한 별빛이 생각나면서 미소짓게 된다. 그때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나는 별빛명상을 준비하면서 도심의 아이들에게 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움으로 불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흠뻑 낭만에 젖어 아이들이 고요한 명상으로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보물찾기에서 준 응원봉이 문제였다. 응원봉은 반짝반짝 빛이 들어오고 색깔이 12가지로 변한다. 반짝이 자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별빛명상인지 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응원봉 하나를 꼭 잡고 손에서 놓지 않는다. 외부 불빛이 없이 깜깜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아이들에게 불을 끄기를 강요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압수를 당하고야 포기를 한다.

여름밤 산사의 정취를 꼭 느끼고 걷고 난 후, 준

별빛 아래 펼쳐진 ‘약자지꼴’ 명상



그림 · 박귀원

비된 돛자리에 모두 누우라고 했다. 누우면서도 난리다. 그와중에도 토닥토닥 다루고 떠든다. 결국 별빛명상은 나의 조용히 하라는 소리로 시작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로 끝난 것 같다.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별빛명상을 선사하고 싶었는데...

속소로 돌아가는 길에 무전 스님이 살짝 다가왔다. “스님, 아이들이 조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그냥 아이들 떠들면서 별을 바라보도록 하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한다. 순간 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식 대로의 사랑을 한다. 상대가 좋아 하든 말든 자기방식대로 상대를 사랑한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에는 아이들이 오순도순 이야기 꽃을 피우게 했던 기억이 난다. 명상이라고 해서 꼭 조용히

하라는 법이 있나? 생각해 보니 그것도 그렇다. 별빛명상 다음날 한 아이가 불쑥 다가오더니 하는 말 “스님은 좋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니까요. 저는 어젯밤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순간 행복했다. ‘너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별빛이 들어 갔구나. 언젠가 삶이 너를 힘들게 할때 부디 아름다운 별빛을 꺼내어 보길 바라. 그리고 네가 만나게 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님은 사실, 이곳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아. 내가 서울에 살 수 있는 것도 가슴속에 산사가 있고 아름다운 별빛이 늘 함께 하기 때문이지.’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는 나의 손을 슬쩍 잡고는 “고마워요, 스님” 한다. 이를 후 130년 만에 볼 수 있는 별뿔별 우주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우리는 유성우를 보기위해 다시 절 마당에 돛자리를 깔고 누웠다. 하늘에서 별뿔별이 뚝뚝 떨어진다. 아이들은 이곳 저곳에서 함성이다 “와~ 또 떨어진다~”.

교사들과 스님들, 아이들은 하늘에서 별뿔별이 떨어질 때마다 소원비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과 누워 별을 보며 노래도 부르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산사의 건물들이 서서히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더라도 가슴속에 은하사 하늘의 별은 영원히 빛나길 바래본다.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소리보다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한국전쟁 정전60주년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불기 2557(2013). 9. 27(금) 오후 2:00-5:00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기념공연
기념식
천도재

출연
황병기 · 이선희 · 인순이 · 바비킴 · 폴 포츠
해민스님 · 이애주 한국전통총회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모스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외

사회 신영일 · 박칼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

문의 <http://www.budpeace.org>
kppf@budpeace.org
051) 508-3125, 3126
02) 739-9081

60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남과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하여,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에도 '평화의 불'이 안착할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도선사 주지 선록해자 합창